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성경: 신 8:7, 11:11-12, 렘 2:13, 17:7-8, 사 12:3-6, 요 4:14하

I.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창 12:7, 13:15, 17:8, 26:3-4),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골 1:12).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었으므로(고전 15:45, 고후 3:17),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일치한다.

B. 사실상,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재화이신 그 영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의 근원인 좋은 땅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다 — 빌 1:19.

II.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다 — 신 8:7, 11:11-12.

A. 시내와 샘과 원천은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4:10, 14, 7:37-39, 계 22:1), 골짜기와 산은 우리가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는 여러 종류의 환경을 상징한다.

B. 성경 전반에 걸쳐 물이신 삼일 하나님에 관한 노선이 있다 — 창 2:10-14, 출 17:5-6, 시 36:8-9, 46:4, 요 4:10, 14, 7:37-39, 고전 10:4, 계 7:17, 22:1.

1.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강은 생명수의 강을 상징하며, 이 강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란다. 이 강은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

2. 시편 36편 8절과 9절에서 원천은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가리키고, 강은 생명수의 강이신 그 영을 가리킨다 — 요 1:4, 7:37-39.

3. 시편 46편 4절에서 강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흐르시는 것을 상징한다.

4.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흘러 보내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었고(출 17:6, 민 20:11), 창에 찢린 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다(요 19:34).

5.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와 시편 46편 4절과 에스겔서 47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강들은 그 흐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풍성을 지닌 이 하나의 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풍성을 여러 방면에서 체험할 때에 많은 강이 된다 — 롬 8:2, 15:30, 살전 1:6, 살후 2:13, 갈 5:22-23.

III. 물이 ‘골짜기와 산에서 흐르는 것’(신 8:7하)은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흐르신다는 것을 가리킨다(비교 왕상 20:23, 28).

- A. 골짜기는 십자가에 대한 체험,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이고, 산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다 — 고후 1:9, 4:11, 14.
- B.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이시다 — 고후 4:7, 빌 4:13.
 - 1.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고후 1:8-9.
 - 2. 사실상 부활이 나타나려면 죽음과 낙심과 절망이 필요하다(고후 1:4, 7:5-6).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 C. 바울은 그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부활 생명을 살았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고후 4:10.
 - 1.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신다 — 빌 1:19, 비교 출 30:23-25.
 - 2.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거절할 때, 온종일 우리는 죽이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것을 느낀다 — 비교 잠 4:18.
- D. “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고후 4:11.
 - 1. 십자가에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 이렇게 매일 죽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15:31, 고후 4:16.
 - 2. 사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이다. 또한 주님의 생활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였고, 그분의 생활이 곧 그분의 사역이었던 그러한 생활이었다 — 요 6:14-15, 12:13, 19, 23-24.
- E.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고후 4:12)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 1. 교회가 산출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불을 해방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 눅 12:49-50, 요 2:19, 12:24-26.
 - 2. 한 알의 밀이신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의 혼생명을 잃으셔서,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밀알들에게 해방하실 수 있었다. 많은 밀알들인 우리 또한 반드시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야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IV.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라고 말한다.

- A.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악은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선 것이었다.
- B.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로 만들 수 없음을 가리킨다 — 요 4:13-14.
- C.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 곧 악을 행하는 이는 바로 그분을 마시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이다(사 55:7).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사 57:20-21, 비교 55:1-2).

V. 생수를 마시고 흘러 보내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 사 12:3-6, 요 7:37-39, 잠 11:25.

- A.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림으로써 주님께 의해,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 한다 — 사 12:3-6, 빌 4:6-7, 12, 비교 영한 동변 찬송가 25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10장).
- B.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노래해야 한다 — 살전 5:16-18, 빌 4:4, 히 13:15, 시 119:164, 엡 5:18-20.
- C.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행 2:21, 고전 12:13, 3, 살전 5:17, 고전 1:2, 사 15:18-19, 애 3:55-56, 영한 동변 찬송가 73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5장).
- D.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롬 1:16, 요 4:32-34, 빌 2:9, 벧전 2:9.
- E.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며, 모든 것을 신성한 본성에 따라 해야 한다 — 계 22:1, 골 1:18하, 벧후 1:4.

VI.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여 강가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이다 — 렘 17:7-8.

- A. 신성한 분배를 받기 위해 나무들인 우리는 물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야 한다(비교 고전 3:6, 골 2:7상). 나무들인 우리 안으로 분배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으로 조성하여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골 2:19).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동일한 요소와 본질과 조성과 모양을 갖게 되어 하나가 된다(계 4:3, 21:11).
- B.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하나님을 더 누릴 것이다.
 1. “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송이 있다(영한 동변 찬송가 10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724장)).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 — 골 2:6-7상.

2.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 드려야 한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3.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에도 그분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다 — 벰전 4:10-11, 고후 2:17, 13:3.

VII.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솟구쳐)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A. 이것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 (1) 아버지는 원천 곧 근원이시고, (2) 아들은 샘, 곧 원천의 출현이시며, (3) 그 영은 강 곧 흐름이시다. 삼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흐르고 계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이들 안으로 흐르고 계신다 — 고후 13:14, 요 7:37-38.
- B. 삼일 하나님의 흐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요 4:14하).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며, ‘-에 이르다(into)’라는 말은 ‘-로 귀결되다’ 혹은 ‘-이 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천이신 아버지와 샘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은 우리 안으로, 우리와 함께 흐르시어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